

## 초록

- **연구목적** :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의 정신보건 예산, 시설현황, 인력등의 인프라 및 등록 대상자 현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서울시의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서울시정신보건 인프라 현황에 대한 주요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연구방법** :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비 지원 약 170개 정신보건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2017년 3월 수행됨. 6개영역 2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데이터는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됨. (※본 조사는 조사시행연의 전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것이며, 분석항목일부에 대한 결과를 본 연구집에 수록함)
- **연구결과** : 서울시의 정신보건예산은 2015년 대비 2016년 6.7% 증가, 정신보건기관수는 2015년 대비 2016년 1.2% 증가함.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인력은 2015년 대비 2016년 2.3%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전문요원의 수는 2% 증가함. 등록 대상자 현황에 있어서는 2015년 대비 2016년 25.6% 감소했고 2016년 기준 등록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유형의 경우 정신병적 장애(F20-29) 45%, 기분장애(F30-39)34%, 소아청소년기 행태 및 정서장애(F90-98) 11%로 나타남. 또한 등록대상자의 자살사망은 2015년 31명에서 2016년 18명으로 42%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서울시의 정신보건 예산, 인력, 기관은 매년 양적 팽창을 하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수요대비 인프라 공급에 대한 적정량에 대한 추계와 이에 기반한 서울시정신보건정책 수립이 필요함.
- **주요용어** : 서울시정신보건 인프라 (예산, 인력, 시설현황), 서울시정신보건기관 이용대상자 현황(기관유형, 진단유형, 기관유형별 등록대상자 자살사 현황)

## Abstract

- **Objective** : This survey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budget, facilities, personnel, etc.) and registration target status for the purpose of: 1) providing basic reference, which can be utilized in establish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policies; and 2) developing key indicators of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status.
- **Methods** : This survey study was done on around 170 mental health centers sup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April 2016 and March 2017 through a questionnaire composed of 28 detailed items in 6 fields and some data collected from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This study conducted year-on-year comparison of mental health center status in 2016 and 2017 and contains analysis results of some part of questionnaire items)
- **Results** : In 201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budget rose 6.7%, mental health center figures increased 1.2%, mental health center employee figures grew 2.3%, and mental health specialist figures increased 2%, whereas registration target figures decreased 25.6% and suicide death committed by registration targets declined 42% from 31 cases to 18 cases. As for mental health problem type of registration targets, psychotic disorder (F20-29) accounted for 45%, mood disorder (F30-39) 34%,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90-98) 11% as of 2016.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Conclusion** : Whil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budget, mental health center figures, mental health personnel figures are showing quantitative growth, the growth rate is on a downtrend. Further studies shall be conducted based on this study results to derive statistics of proper infrastructure supply compared to demand, which may help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establish well-grounded mental health policies.
- **Keyword**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budget, facilities, personnel, etc.), registration target statu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centers (center type, diagnosis type, suicide among registration targets by center type)

## I. 조사 배경

국가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설의 현황, 인력, 예산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현황은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가 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전 세계 주요국의 정신보건예산, 인력, 기관 등 각종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5년 주기로 수집해 Mental health atlas를 발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도 가입국의 재정, 병상수 등 정신보건지표와 기초통계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해 World Health Statistics(WHO), Health at a Glance(OECD)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주요국간 현황을 비교하고, 지표를 설정해 국가 정신보건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행정부처별 정신보건 관련 국가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고 산발적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정신건강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앙정신보건사업 지원단의 정신보건통계현황 자료 또한 17개 시도단위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25개 자치구별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서울시정신보건기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표를 구성, 25개 자치구의 인력, 예산 등 각종 인프라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확보해왔고 조사 영역과 항목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생산된 기초 통계자료는 서울시정신보건홈페이지(www.seoulmentalhealth.kr)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광역형 사업 수행 근거 및 서울시 정신보건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II.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서울시비 지원 정신보건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 2015년 : 총 165개소
- 2016년 : 총 167개소

〈표1. 서울시비 지원 정신보건기관〉

- 2015.12.31. 기준

기관구분			기관수
보건소 (자살예방사업)			25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1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25
정신요양시설			3
사회 복지시설	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54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3
		단기보호시설 (의료지원형사회복지시설)	4
		주간재활시설	27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10
	직업재활시설		5
	중독자 재활시설(입소시설)		3
	종합시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합계			165

- 2016.12.31. 기준

기관구분			기관수
보건소 (자살예방사업)			25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25
정신요양시설			3
사회 복지시설	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55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3
		단기보호시설 (의료지원형사회복지시설)	4
		주간재활시설	27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10
	직업재활시설		5
	중독자 재활시설(입소시설)		3
	종합시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합계			167

※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7.5.30.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조사시점이 법 개정전으로 기존 명칭 사용함. (사회복지시설도 2017.5.30부터 정신재활시설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조사시점이 법 개정전으로 기존 명칭 사용함.)

※ 기관구분은 2015, 2016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 기준에 준함.

## 2. 조사내용

조사는 6개 영역, 28개 세부항목으로 수행하였으며, 2016년도 까지 조사되었던 등록회원의 진단, 연령, 성별, 직업 현황은 2016년 이후 170개 기관전체가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eoul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SMHIS)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별도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자체분석 했다. 2016년 시행 조사는 2015.12.31. 기준의 기관현황 2017년 시행조사는 2016.12.31. 기준의 기관현황을 조사했다.

〈표2. 서울시정신보건기관 현황조사 영역〉

영역	세부항목
세부항목	기관명 / 기관유형 / 운영주체
인력	상근인력수 / 개별 인력현황 (이름, 근무형태, 근무직종구분, 인력호봉 등)
예산	세입예산(국비, 시비, 자치구비) / 세출예산(사업영역별)
이용자 현황	정원 / 현원 / 연령, 성별, 진단, 장애등록, 의료보장 현황
수행사업, 투입인력	수행사업별 비율 / 사업별 투입인력(FTE 개념)
등록회원 자살	성별 / 나이 / 진단 / 치료력 / 동거가족유무 / 사망자살 시도 수단 / 과거 시도력

## 3. 조사방법

조사는 2016년 3월, 2017년 4월 수행되었다. 구조화된 조사표를 각 기관별 이메일로 조사표를 발송해 조사를 진행, 100% 수거하여 서울 시비지원 전 기관의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했다.

## Ⅲ. 조사결과

본 연구집에 수록된 조사결과는 최근 2개년(2015년~2016년의 현황), 6개 영역 28개 세부항목 중 정신보건예산, 인력, 이용자 현황, 등록회원 자살 등 일부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1. 서울시의 정신보건기관 운영 현황

서울시의 2015년 정신보건기관은 총 165개소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 1개소(0.6%), 보건소 25개소(15.2%), 정신건강증진센터 25개소(15.2%), 이용시설 33개소(20%), 입소시설 7개소(4.2%), 거주시설 55개소(33.3%),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12개소(7.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2.4%), 정신요양시설 3개소(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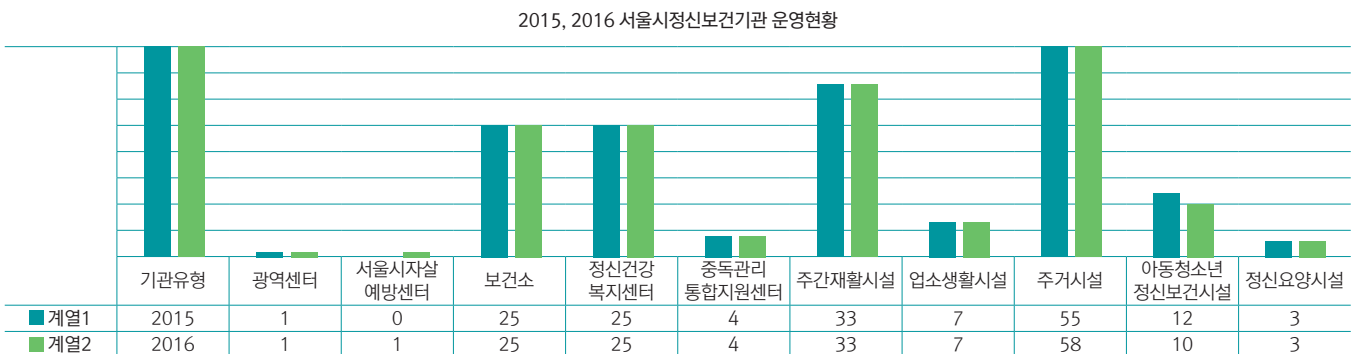
2016년은 총 167개소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 1개소(0.6%),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개소(0.6%), 보건소 25개소(15%), 정신건강증진센터 25개소(15%), 이용시설 33개소(19.8%), 입소시설 7개소(4.2%), 거주시설 58개소(34.7%),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10개소(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2.4%), 정신요양시설 3개소(1.8%)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신보건기관수는 2015년 대비 2016년 1.2%(2개소) 증가됐고 신설된 기관 중 1개 기관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로부터 2016년 3월부터 분리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신설기관으로 포함되었으며 거주시설은 2015년 대비 2016년 5.4%(3개 기관)증가해 기관종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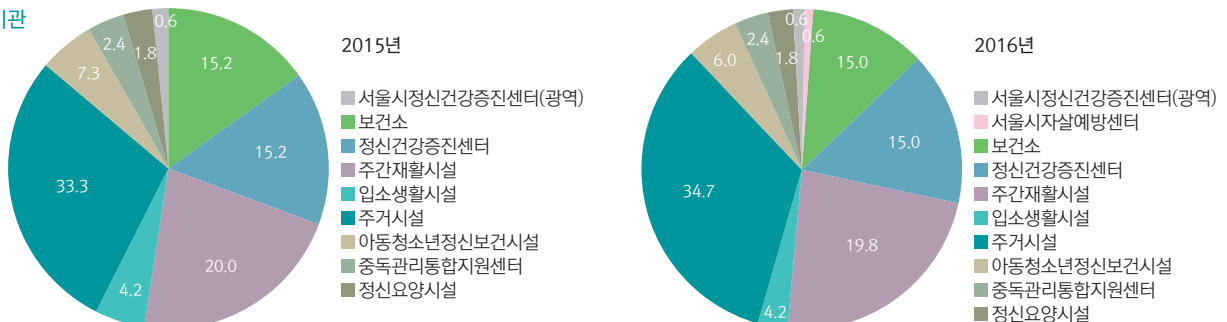
※ 기관분류 참고 : 이용시설-주간재활, 직업재활, 종합시설 / 입소시설-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중독자입소시설 / 거주시설-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림1. 2015, 2016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운영현황〉

- 연도별 운영 기관수



- 연도별 운영기관 종별 비율



자치구별 정신보건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보건소를 제외한 서울시정신보건기관은 총 137개소로 2015년 136개소 대비 0.7%(1기관) 증가하였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25개 자치구 당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거주,입소,이용,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자치구별로 설치된 개소수의 편차가 심해 2016년 기준 강서구와 광진구가 각 10개소로 가장 많고 강남구, 동작구, 중구가 각 2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5, 2016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정신보건 기관수〉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2016	137	5	2	3	3	10	6	5	3	5	9	9	9
2015	136	5	2	3	3	10	6	5	3	5	9	9	9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16	8	5	8	10	7	3	3	2	7	4	2	4	5
2015	8	5	8	10	6	3	3	2	7	4	2	4	5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보건소제외

〈표4. 2016년 자치구별 이용시설 현황〉

자치구	주민등록인구	시설 수	정원 수	인구 10만명 당 이용시설 정원 수
서울시	10,204,057	43	1,612	15.7
강남구	572,140	1	50	8.7
강동구	448,471	1	30	6.6
강북구	330,704	2	70	21.1
강서구	602,104	4	140	23.2
관악구	525,607	2	85	16.1
광진구	372,104	1	55	14.7
구로구	449,600	1	25	5.5
금천구	254,654	0	0	0
노원구	571,212	3	90	15.7
도봉구	350,272	2	75	21.4
동대문구	370,312	3	80	21.6
동작구	413,247	1	30	7.2
마포구	390,887	2	170	43.4
서대문구	325,871	2	80	24.5
서초구	451,477	3	99	21.9
성동구	307,161	2	73	23.7
성북구	461,617	1	30	6.4
송파구	664,946	2	90	13.5
양천구	481,845	2	60	12.4
영등포구	406,779	2	55	13.5
용산구	245,102	1	25	10.1
은평구	495,937	1	60	12.0
종로구	161,922	2	60	37.0
중구	134,409	1	30	22.3
중랑구	415,677	1	50	12.0

※ 이용시설은 2016년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정의에 따라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 시설에 속하며, 정신질환자에게 작업, 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 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시설을 포함하여 정원과 시설수가 산출됨.

자치구별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 시설수는 2015년 45개소에서 2016년 43개소로 4.4% 감소했고 정원수의 경우 2015년 1,649명에서 2016년 1,612명으로 2.2%(37명)감소했다. 2016년 기준 자치구별 이용시설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4개소로 가장 많고 금천구에는 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었다. 강남구 등 10개 자치구에는 이용시설이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등 자치구별 설치기관수에 있어 편차가 있다. 이용시설 정원수는 마포구가 170명으로 가장 많고 구로구가 2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거주시설은 2015년 62개소에서 2016년 65개소로 4.8% (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 정원수는 2015년 623명에서 2016년 635명으로 1.9%(12명)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자치구별 거주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광진구가 8개소로 가장 많고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등 6개 자치구에는 거주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는 등 25개 자치구 중 40%에 해당하는 10개 자치구에 거주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거나 1개소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2016년 자치구별 거주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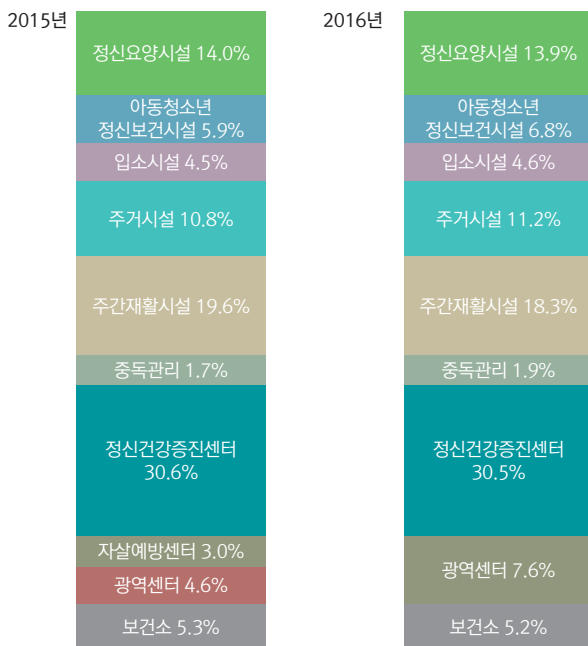
자치구	주민등록인구	시설 수	정원 수	인구 10만명 당 거주시설 정원 수
서울시	10,204,057	65	635	6.2
강남구	572,140	0	0	0
강동구	448,471	3	39	8.6
강북구	330,704	1	8	2.4
강서구	602,104	5	46	7.6
관악구	525,607	4	31	5.8
광진구	372,104	8	87	23.3
구로구	449,600	4	30	6.6
금천구	254,654	2	18	7.0
노원구	571,212	4	34	5.9
도봉구	350,272	5	78	22.2
동대문구	370,312	2	17	4.5
동작구	413,247	0	0	0
마포구	390,887	2	38	9.7
서대문구	325,871	5	39	11.9
서초구	451,477	0	0	0
성동구	307,161	0	0	0
성북구	461,617	1	7	1.5
송파구	664,946	1	7	1.0
양천구	481,845	5	36	7.4
영등포구	406,779	0	0	0
용산구	245,102	1	7	2.8
은평구	495,937	7	72	14.5
종로구	161,922	2	15	9.2
중구	134,409	0	0	0
중랑구	415,677	3	26	6.2

※ 거주시설은 2016년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준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및 입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주거시설, 의료지원형 사회복지시설, 중독자 입소시설, 공동생활 가정을 포함하여 정원과 시설수가 산출됨.

## 2. 서울시의 정신보건 예산현황

서울시 정신보건예산 총액(세입예산기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5개 자치구 보건소, 정신요양시설포함)은 2015년 50,438,637,614원에서 2016년 53,828,432,813원으로 2015년 대비 6.7%(3,389,795,199원) 증가했다. 2개년간의 기관종별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비중이 2015년 40.9%(20,606,466,279원), 2016년 40.8%(21,949,842,183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은 2015년 서울시 정신보건 전체예산의 30.5%(15,361,897,339원) 2016년 30.6%(16,469,907,000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종별 예산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사회복지시설예산은 6.5%(1,343,375,904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은 7.2%(1,108,009,66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2015,2016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기관유형별 예산 비율〉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세입예산기준/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제외)을 살펴보면, 2015년 3,686원으로 나타났고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은 종로구가 9,346원으로 가장 높고, 송파구가 1,788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은 4,137원으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은 종로구가 9,299원으로 가장 높고, 강남구가 2,153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2016년 자치구별 정신보건예산〉

자치구	주민등록인구	정신보건예산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예산	인구1인당 정신보건 예산
서울시	10,204,057	42,210,826,183	413,667,095	4,137
강남구	572,140	1,232,045,000	215,339,777	2,153
강동구	448,471	1,560,481,371	347,955,915	3,480
강북구	330,704	1,583,158,000	478,723,572	4,787
강서구	602,104	2,503,124,841	415,729,648	4,157
관악구	525,607	1,651,110,000	314,133,944	3,141
광진구	372,104	2,439,650,825	655,636,818	6,556
구로구	449,600	1,710,318,245	380,408,862	3,804
금천구	254,654	898,992,000	353,024,889	3,530
노원구	571,212	2,894,892,785	506,798,314	5,068
도봉구	350,272	2,598,698,797	741,908,801	7,419
동대문구	370,312	1,601,719,000	432,532,297	4,325
동작구	413,247	1,063,960,479	257,463,570	2,575
마포구	390,887	2,659,876,220	680,471,906	6,805
서대문구	325,871	1,734,463,000	532,254,481	5,323
서초구	451,477	1,670,509,000	370,009,768	3,700
성동구	307,161	1,224,823,000	398,756,027	3,988
성북구	461,617	1,184,188,690	256,530,563	2,565
송파구	664,946	1,669,262,000	254,037,227	2,510
양천구	481,845	1,687,462,000	350,208,470	3,502
영등포구	406,779	1,243,707,000	305,745,134	3,057
용산구	245,102	927,047,000	378,229,064	3,782
은평구	495,937	2,402,511,930	484,438,937	4,844
종로구	161,922	1,505,781,000	929,942,194	9,299
중구	134,409	1,132,846,000	842,834,929	8,428
중랑구	415,677	1,430,198,000	344,064,743	3,441

※ 세입예산기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서울시자살예방센터·정신요양시설 예산제외

## 3. 서울시정신보건 인력현황

서울시의 정신보건인력은 2015년 966명에서 2016년 987명으로 전년대비 2.2% (21명) 증가했다. 전문요원 인력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은 전문요원 62.2%(601명) 비전문요원37.8%(365명) 비율이었고 2016년은 전문요원 61.9%(611명), 비전문요원 38.1%(376명)의 비율로 나타나 2015년 대비 2016년 전문요원은 1.7%(10명) 증가했다.

〈표7. 서울시의 정신보건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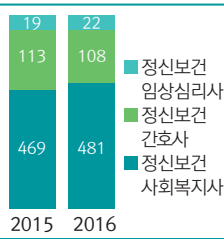
연도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명)	비전문요원 수(명)	합계(명)	비전문요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2015년	601	365	966	365	601
2016년	611	376	987	376	611

※ 전체 조사대상기관의 상근·비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비전문요원 포함 /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제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직종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은 60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정신보건사회복지사 78%(469명), 정신보건간호사 18.8%(113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3.2%(19명)이고, 2016년은 61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정신보건사회복지사 78.7%(481명), 정신보건간호사 17.7%(108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3.6%(22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6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6%(12명) 증가, 정신보건간호사 4.4%(5명) 감소,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5.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서울시의 정신보건전문요원 직종 현황〉

연도	정신보건 사회복지 사(명)	정신보건 간호사 (명)	정신보건 임상심리 사(명)	합계 (명)
2015년	469	113	19	601
2016년	481	108	22	611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유형별 상근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상근인력은 955명, 2016년 983명으로 2.9%(28명)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 상근인력에 있어 2015년 955명중 정신건강증진센터 31%(296명), 주간재활 시설 23.4%(223명), 정신요양시설 11.9%(114명), 주거제공시설 11.4%(109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7.6%(73명), 입소시설 5.1%(49명),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 4.9%(47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7%(26명), 보건소 1.9%(18명)로 나타났고, 2016년 983명중 정신건강증진센터 30.9%(304명), 주간재활시설 11.4%(213명), 정신요양시설 11.8%(116명), 주거시설 11.4%(112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6.5%(64명), 입소시설 4.9%(48명), 보건소 4.8%(47명),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 3.5%(34명),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4%(24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1%(21명)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귀시설(주간재활, 주거시설, 입소시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의 상근 인력을 살펴보면, 상근인력 총원은 437명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265명, 비전문요원 172명으로 6: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9. 2016년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유형별 상근 인력현황〉

기관 유형	기관 수	전체인력 수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	비전문 요원 수	비율 (전문요원: 비전문요원)
서울시 정신건강 증진센터(광역)	1	34	31	3	9:1
서울시자살 예방센터	1	24	17	7	7:3
보건소	25	47	2	45	1:20
지역 정신건강 증진센터	25	304	270	34	8:1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4	21	19	2	9:1
주간재활시설	33	213	146	67	6:4
주거시설	58	112	55	57	5:5
입소시설	7	48	33	15	6: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10	64	31	33	5:5
정신요양시설	3	116	4	112	1:30
합계	167	983	608	375	6:4

자치구별 정신보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한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인력은 867명으로, 이중 604명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정신보건전문요원 50명으로 25개 자치구 전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8.3%의 비율을 차지해 가장 높은 정신보건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10명으로 25개 자치구 전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1.7%를 차지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25개 자치구의 비전문요원은 총 263명으로 광진구와 구로구는 비전문요원 21명으로 25개 자치구 비전문요원 전체비율의 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금천구와 동작구, 용산구는 각 5명으로 25개 자치구 비전문요원의 1.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전문 인력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마포구, 중구가 각각 9.7명으로 가장 높고 동작구가 3.4명으로 가장 낮은 수로 나타났다.

〈표10. 2016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인력 현황〉

자치구	주민등록인구	정신보건전문 요원 수	비전문 요원 수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 전문인력 수
서울시	10,204,057	604	263	5.9
강남구	572,140	50	8	8.7
강동구	448,471	22	9	4.9
강북구	330,704	18	11	5.4
강서구	602,104	29	16	4.8
관악구	525,607	19	16	3.6
광진구	372,104	29	21	7.8
구로구	449,600	39	21	8.7
금천구	254,654	12	5	4.7
노원구	571,212	40	11	7.0
도봉구	350,272	31	18	8.9
동대문구	370,312	18	10	4.9
동작구	413,247	14	5	3.4
마포구	390,887	38	16	9.7
서대문구	325,871	24	10	7.4
서초구	451,477	26	8	5.8
성동구	307,161	21	6	6.8
성북구	461,617	17	7	3.7
송파구	664,946	25	6	3.8
양천구	481,845	26	6	5.4
영등포구	406,779	18	8	4.4
용산구	245,102	10	5	4.1
은평구	495,937	30	13	6.0
종로구	161,922	15	7	9.3
중구	134,409	13	8	9.7
중랑구	415,677	20	12	4.8

※정신요양시설 인력은 자치구 인력현황 산출시 에서 제외함.

#### 4. 서울시정신보건기관 이용자 현황

서울시비 지원 정신보건기관 등록 대상자수는 2015년 데이터의 경우 현황조사표 배포를 통해 수거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mhis.seoul.go.kr)을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167개소 전체가 사용을 개시했고 시스템 내 데이터

자체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별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시스템 내부 데이터 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단 2016년 분석 원데이터는 2016.1.1.-2016.12.31. 기간을 기준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나 2016년 시스템 사용을 개시한 사회복지시설이 2017년 초 전 기관이 회원 등록 완료한 상황을 감안하여, 등록 대상자 현황의 경우 2017.4.14. 기준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한 바 있다.

〈표11. 이용자 현황 분석 항목 및 자료원〉

	2015년		2016년	
검색일	2015.12.31기준		2017.4.14. 기준	
검색기간	2015.1.1.-2015.12.31		2016.1.1.-2016.12.31	
분석 항목	기관정보, 예산현황, 인력현황, 이용자현황(정원, 현원) 등록회원 자살현황	등록대상자 현황 : 성별, 연령, 의료보장, 장애등록, 진단현황	기관정보, 예산현황, 인력현황, 이용자현황 (정원, 현원), 등록회원 자살현황, 수행사업, 사업별 투입인력(FTE 개념)	등록대상자 현황 : 성별, 연령, 의료보장, 장애등록, 진단현황
자료원	조사지 배포를 통한 설문조사	SMHIS (smhis.or.kr) + 설문조사	조사지 배포를 통한 설문조사	SMHIS (mhis.seoul.go.kr)

서울시비 지원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431명, 2016년 14,442명으로 25.6%(1,98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의 사회복지시설 이용확대이후 서울시의 정신보건전달체계 내에서 사례관리 권한이 사회복지시설로 이양된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대상자중 주거, 이용 시설 등록 대상자의 퇴락이 진행되는 등 등록대상자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2017년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될 예정이다.

기관 유형별 등록대상자 분포를 살펴보면, 시민대상 포괄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등록 대상자가 2015년 84.9%, 2016년 8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연도별 기관유형별 등록대상자 증감율〉

기관 유형	2015년 등록 대상자	2016년 등록 대상자	증감율
정신건강증진센터	16,494(84.9%)	12,463(86.3%)	24.4% ▼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660(3.4%)	512(3.5%)	22.4% ▼
주간재활시설	1,324(6.8%)	805(5.6%)	39.2% ▼
주거제공시설	389(2%)	210(1.5%)	46%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449(2.3%)	338(2.3%)	24.7% ▼
입소생활시설	115(0.6%)	114(0.8%)	0.9% ▼
합계	19,431(100%)	14,442(100%)	2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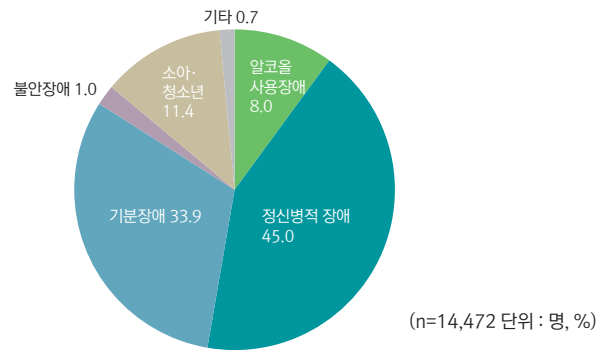
※ 정신요양시설은 등록대상자현황 산출시 제외함.

서울시정신보건기관 등록대상자 진단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등록대상자 총 19,431명 중 정신병적 장애가 45.5%(8,843

명), 기분장애 31.8%(6,171명), 소아청소년기발병의 형태 및 정서장애 11.7%(2,28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은 등록대상자 총 14,472명 중 정신병적 장애 45%(6,512명), 기분장애 33.9%(4,904명), 소아청소년기 형태 및 정서장애 11.4%(1,648)의 순으로 나타나 진단별 비율은 유의한 추이 변화가 없었다.

※ 정신병적 장애(F20-29) / 기분장애(F30-39) / 소아기청소년기 형태 및 정서장애(F90-98)

〈그림3. 2016년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등록대상자 진단현황〉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기분 장애	불안 장애	소아청소년기발병의 형태 및 정서 장애	기타
총인원 (명)	6,512	1,155	4,907	142	1,648	108
백분율 (%)	45.0	8.0	33.9	1.0	11.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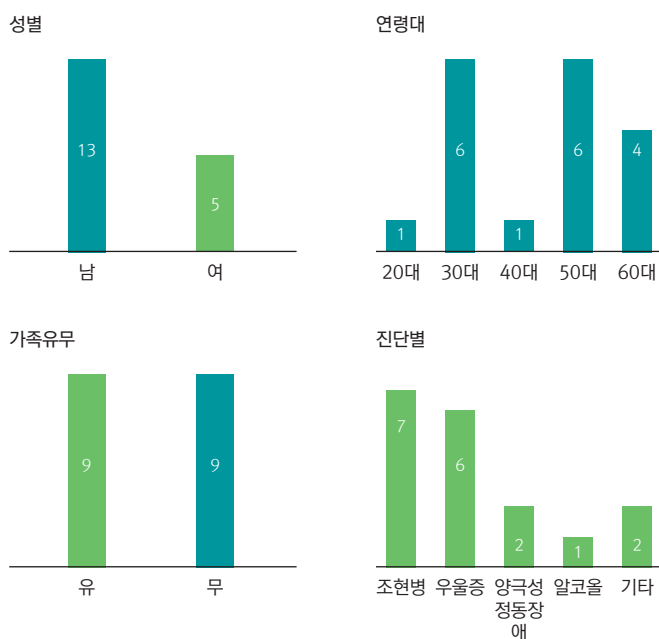
시민대상 포괄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현실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이용대상군 추이변화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는 2015년 16,494명에서 2016년 12,463명으로 24.4%(4031명) 감소했다. 표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등록대상자중 정신병적 장애진단 대상군이 2015년 44.6% , 2016년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분장애관련 진단 대상군 또한 2015년 35.8%, 2016년 38.3% 비율로 정신병적 장애 다음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기 관련 정신질환 대상군도 2015년 12.1%, 2016년 10.4%로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관련 진단군 보다는 양적으로 적은 수치이나 불안, 알코올, 기타 질환과 비교해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3.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대상자 진단 현황〉

진단분류	2015년(명)	2016년(명)	증감율
알코올 사용장애 (F10)	895	596	33.4% ▼
정신병적 장애 (F20-F29)	7,355	5,601	23.8% ▼
기분장애 (F30-F39)	5,900	4,778	19% ▼
불안장애 (F40-F49)	185	130	29.7% ▼
소아청소년기 발병의 형태 및 정서장애 (F90-F98)	1,994	1,292	35.2% ▼
기타	165	66	60% ▼
합계	16,494	12,463	2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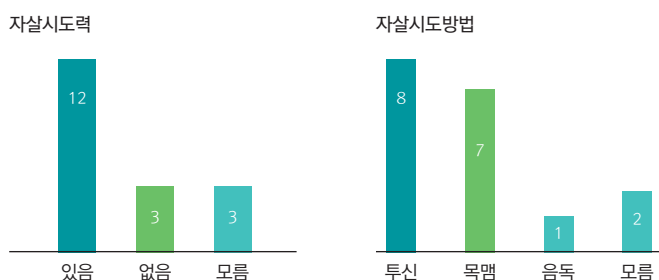
서울지역정신보건기관 등록대상자 자살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1명, 2016년 18명으로 41.9%(13명) 감소했다. 등록대상자 자살사망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인원 235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등록대상자 자살사망자의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남자 72.2%(13명), 여자 27.8%(5명), 연령대별로는 30대와 50대가 각각 33.3%(6명)으로 높았고, 60대 22.2%(4명), 20대와 40대가 각각 5.6%(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유무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각각 50%(9명), 진단별 현황에 있어 정신병적 장애 38.8%(7명), 우울증 33.3%(6명), 조울증과 기타 각 11.1%(2명), 알코올 5.5%(1명)순으로 나타났다.

〈그림4. 2016년 서울시정신보건기관 등록대상자 자살사망자 현황〉



2016년 기준 서울시정신보건기관 등록자 대상자중 자살로 사망한 대상군의 자살시도력에 있어 자살시도력이 있음 66.7%(12명), 시도력이 없음과 모름이 각각 16.7%(3명)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당시의 자살시도 방법에 있어 투신이 44.4%(8명), 목매 38.9%(7명), 모름 11.1%(2명), 음독 5.6%(1명)순으로 나타났다.

〈그림5. 2016년 서울시정신보건기관 등록대상자 자살사망자의 자살시도력, 자살시도방법〉



## IV. 결론

서울시의 정신보건 인프라는 2004년 서울시정신건강 2020 1차년 계획수립이후 예산, 인력, 기관 등에 있어 양적 팽창을 지속해왔으며 2012년 이후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7개년간의 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울시가 17개 시도중 선도적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확보해 정신보건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보인다.

추후 정신보건 기관 현황에 대한 조사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분석 외 분석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법의 개정과 더불어 지역기반의 복지서비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서울시의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신보건기관의 역할 또한 변화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심리지원센터 등 새로운 정신보건영역의 인프라들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신보건 기관 이용자 현황의 분석에 있어 후속연구를 통해 이용자 현황 변화가 의미 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신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 V. 부록 : 서울시정신보건기관 현황 관련 주요지표 추이

지표

지표 추이변화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예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인당 정신보건 예산(원)	2,242	2,466	2,689	2,827	3,261	3,609	3,686	4,137
증감율(%)	0	10	-19.7	5.1	15.3	10.7	2.1	10.9

※ 세입예산기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서울시자살예방센터·정신요양시설 예산제외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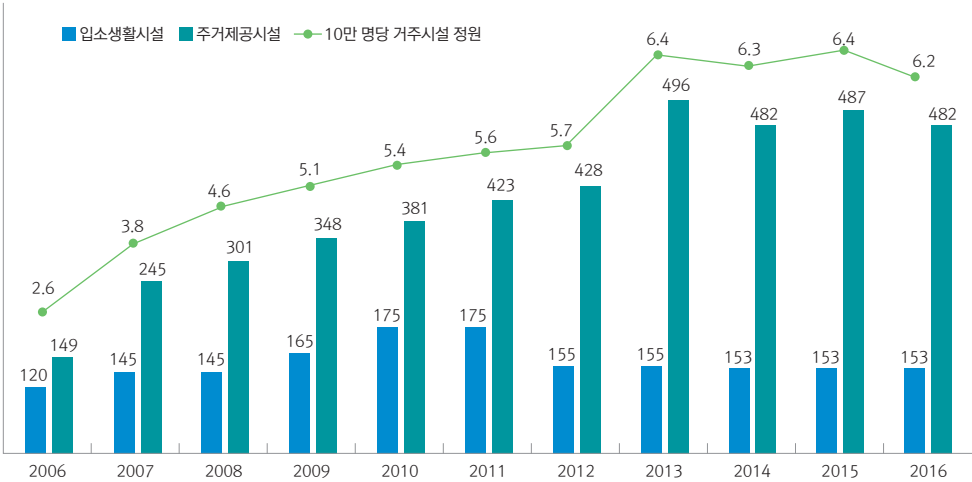
인구 10만명당 이용시설 정원

해당연도	시설 수	정원(명)	10만 명당 주간재활시설 정원(명)
2007	21	900	8.8
2008	21	900	8.8
2009	25	1,015	9.9
2010	28	1,090	10.6
2011	30	1,125	11
2012	36	1,380	13.5
2013	41	1,568	15.5
2014	42	1,614	16
2015	43	1,632	16.5
2016	43	1,612	15.7

※ 이용시설은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하여 정원과 시설수가 산출됨.

지표	지표 추이변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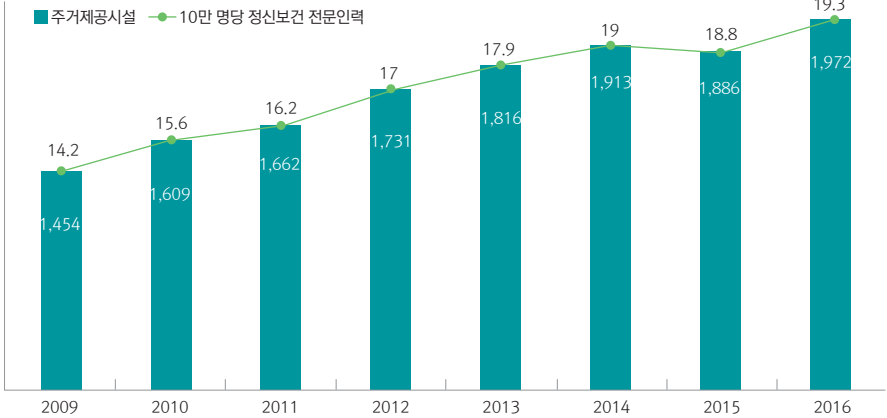
서울시  
인구10만명당  
거주시설 정원



해당연도	입소생활시설(개)	주거제공시설(개)	거주시설 정원(명)	10만 명당 거주시설 정원(명)
2006	120	149	269	2.6
2007	145	245	390	3.8
2008	145	301	466	4.6
2009	165	348	523	5.1
2010	175	381	556	5.4
2011	175	423	578	5.6
2012	155	428	583	5.7
2013	155	496	649	6.4
2014	153	482	635	6.3
2015	153	487	640	6.4
2016	153	482	635	6.2

※ 거주시설은 주거시설,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중독자 입소시설, 공동생활 가정을 포함하여 정원과 시설수가 산출됨.

서울시  
인구 10만명 당  
정신보건전문요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신보건 전문인력(명)	1,454	1,609	1,662	1,731	1,816	1,913	1,886	1,972
10만명당 정신보건 전문인력(명)	14.2	15.6	16.2	17	17.9	19	18.8	19.3

※ 본 지표는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정신보건전문인력의 총합에 대한 지표임.

